

보도시점 (온라인, 지면) 2024. 8. 14.(수) 10:00

행정안전부 장관,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수습 상황 점검

- 인천 서구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현장 방문해 수습 상황 점검 및 피해주민 위로

-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(14일),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지하주차장 현장을 찾아 피해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.
- 이상민 장관은 사고 수습 현황을 살핀 후, 입주민대표·관리소장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.
- 또한, 근로자 안전에 유의하면서 화재 피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.
- 지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(6.24.) 이후,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“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*”(단장 : 행안부 장관)를 운영하고 있다.
 - * (목적) 잠재되어 있는 재난 위험요소 발굴, 개선 및 방지대책 마련
 - (구성) ①산단 지하 매설물 개선반, ②**전기차 지하충전소 안전개선반**(국조실 총괄,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로 격상), ③전지 화재 개선반, ④원전·댐·통신망 개선반
- 또한, 환경부가 주관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기충전소와 지하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(7.30.~8.8.)을 완료했으며,
- ▲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, ▲지하 주차시설 안전 강화, ▲화재 대비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.
- 또한,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조사에 권고하기로 하였다.

□ 이상민 장관은 “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,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	책임자	과 장	지만석	(044-205-4510)
		담당자	사무관	정인성	(044-205-4509)
	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전략지원단	책임자	단 장	이일령	(044-205-4540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섭	(044-205-4535)

